

## 道德性 回復을 위한 ‘大丈夫論’의 現代的 意味

정미선\*

<目次>

- I. 서론
- II. 孟子의 道德性和 回復
- III. 大丈夫論과 現代的 意義
- IV. 결론

<국문 초록>

인간에게 도덕적인 삶, 가치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식욕, 성욕, 권력욕 등 기능적인 욕망들로 인해 修養을 度外視하고, 스스로 인간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禽獸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인간상실, 가치관 몰락, 물질 만능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本性에 대한 性善의 自覺, 擴充,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맹자의 도덕적인 마음을 보존하는 存心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求放心의 방법과도 통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양하고 확충하는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寡慾, 浩然之氣, 大丈夫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儒家の 학문은 실천을 중시한다. 따라서 진정한 도덕적 수양은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확충해야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도덕적 실천행위를 통

\* 강원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 mahaceo@naver.com

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맹자의 도덕성 회복과 그 실천은 더욱 필요하다.

【주제어】 맹자, 인의예지, 존심, 구방심, 호연지기, 대장부, 도덕성 회복, 철학실천

## I. 서론

세계 곳곳은 지금도 영토분쟁이나 종교분쟁, 핵, 인권문제로 인해 서로 대립하고 있거나 전쟁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 또 기상이변까지 일으키고 있는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가치관의 顛倒와 도덕질서의 붕괴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물질문명의 발전은 인간 스스로의 주체성, 만물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 가는 현상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는 더 이상 서양만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기술에만 의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제 21세기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은 서로 이웃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예견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논쟁을 일으켰던 사무엘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은 21세기를 문화, 문명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전환한다는 가정에서 쓰여 졌다고 볼 수 있다. 헌팅톤은 새로운 시대의 분쟁이 지금까지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적 이데올로기(ideology)나 경제적 이익의 대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에서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가치관의 전도, 상실, 왜곡으로 인한 인간의 끝없는 물질적 욕망과 도덕성의 상실 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은 인간이 인간인 이상 매우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아주 쉬운 해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은 누구나가 납득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인간에 대한 물음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자기이해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신의 생존유지를 위해 전적으로 본능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해 나가는 존재이며, 이러한 계획과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둘째, 인간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존재이며, 이를 위해 역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인류의 역사, 문화 발전과정은 인간의 자기 파악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인류발전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나 나름대로의 인간상을 항상 지니고 있으며, 인간상 또한 역사, 문화의 발전과정과 함께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사실이다. 고대인과 근대인, 그리고 동양인과 서양인이 각각 서로 다른 인간상을 지녀왔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인본주의적 학문인 유학은 인간의 도덕성을 신뢰하는 기반에서 참된 인간의 道를 사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sup>1)</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갖는 도덕성을 자각, 본성<sup>2)</sup>의 실현, 나아가 회복할 수 있음에

1) 吳錫源, 『韓國 道學派의 義理思想』, 儒敎文化研究所, 2005, p.86.

2) 인간의 본성이 善하냐 惡하냐의 문제는 유학의 인성론사에 있어서 주요 논쟁의 하나다. 인성의 선악문제를 둘러싼 논쟁들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로 제기되었다. 人間 本性의 善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이론들 가운데 처음으로 인성의

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한가? 사회적 병폐와 비리, 가치관의 혼란과 전도 등은 21세기 물질적 풍요로움에 반비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도시화, 산업화로 확대되어진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제기는 새삼 새로울 것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정신적 가치관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회 문제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간다움의 교육, 특히 도덕교육과 도덕적 인간상으로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는 기존의 맹자와 관련된 다양한心性修養論 중에서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 방법 가운데 하나로 ‘도덕성의 회복과 대장부론의 현대적 의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기존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로 맹자의 심성론, 수양론, 공부론 등 방대한 연구 성과가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오늘날 도덕성 회복과 대장부론 연구는 커다란 맹자의 철학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연구되어진 성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 능력을 발휘하여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주장은 『맹자』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는 맹자의 심성수양론이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심성을 도덕적 가치와 결부시켜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사람은 맹자였기 때문이다.

## II. 孟子의 道德性和 回復

맹자가 살던 사회상은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의 사회 상황과 분리해

---

본질을 사단을 통해 善하다고 논의한 사람은 孟子다. “性善說--孟子, 許慎, 王陽明, 戴震, 性惡說--荀子, 杜牧, 性無善無惡論--老子, 莊子, 告子, 董中舒, 性有善有惡論--宓子賤, 漆雕開, 世碩, 楊雄, 性三品論--王充, 韓愈, 皇甫湜”(方東美, 鄭仁在 譯, 『中國人의 人生哲學』, 탐구당, 1992, pp.90-92)

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에 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군주나 爲政者들은 통치체제나 경제제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제도에서 봉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이념과 방법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 당시 군주들의 霸權욕망을 도와주고, 자신들의 학문과 사상을 전개해 보려했던 학자들은 주로 法家와 兵家로서 대체적으로 富國強兵 사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맹자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王道정치로 표현되는 이상사회를 추구하며 자신의 사회사상을 펼쳐 나갔던 사람이다. 여기서 사회사상은 인간의 사회에 대한 태도 및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관한 사상이다. 그것은 사회관이나 세계관과 같은 뜻으로 사회를 통일적인 전체로 보고 그 의의와 가치에 대하여 갖는 견해나 주장<sup>3)</sup>을 말한다. 물론 그러한 주장이나 태도결정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내리는 것이다.

맹자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정치체제, 경제제도, 사회질서 등이 매우 혼란한 전국 시기에 살았다. 그래서 맹자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어진 왕이 나타나 어진 정치를 펴지 않은 적이 요즈음처럼 오래된 적이 없었고,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는 것이 요즈음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sup>4)</sup>고 하며 仁政<sup>5)</sup>의 不在를 말했고, 그 원인은 통치자가 仁義보다는

3) 신기철 外,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93, pp.1698-1699.

4) 『孟子』 「公孫丑上」, “王者之不作, 未有疏於此時者也. 民之憔悴於虐政, 未有甚於此時者也.”(이하 원문은 『孟子』 十三經注疏 影印本, 北京:中華書局, 1980을 참고함)

5) 仁政은 선왕의 도로써 백성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밭을 돌봐주고 세금 거두는 것을 가볍게 하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철에 맞추어 먹고 예에 맞게 소비를 한다면 재물은 이루다 쓰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백성들은 물과 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지만 캄캄한 저녁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물과 불을 구하면 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물과 불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성인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콩과 조 같은 곡식을 물과 불처럼 풍족하게 있도록 한다. 콩과 조가 물과 불처럼 풍족한데도 어떻게 어질지 못한 자가 있겠는가?”(『孟子』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sup>6)</sup>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때의 군주들을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켜 들판에 가득 차게 사람을 죽이고, 성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켜 성에 가득 차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것은 토지를 얻으려고 사람고기를 먹는 것으로 그 죄는 사형에 처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sup>7)</sup>고 했다. 그래서 그는 梁襄王에게 당시 “왕 가운데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왕이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목을 빼고 그를 기다릴 것”<sup>8)</sup>이라고 했다. 이 말은 전쟁을 싫어하는 왕만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는 뜻인 동시에 군주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어진 정치만이 가장 이상적 정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가 당시 사회를 전쟁, 폭정, 빈곤, 윤리의식의 부재 등이 어우러진 사회라고 보았고, 맹자의 이상사회는 군주와 백성의 도덕적 완성을 통한 현실적 풍요로움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정과 井田制 같은 경제체제와 윤리적 삶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맹자가 이상사회를 위해 가진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도덕행위의 근거인 도덕성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공자의 인심이나 맹자의 인의예지는 감관적 본능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고유한 도덕성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물론 『논어』에서 공자는 성에 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고, 또한 인이 바로 성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공자는 “오직 仁者여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sup>9)</sup>고

「盡心上」, “孟子曰 易其田疇, 薄其稅斂, 民可使富也. 食之以時, 用之以禮, 財不可勝用也. 民非水火不生活, 昏暮叩人之門戶, 求水火, 無弗與者, 至足矣. 聖人治天下, 使有菽粟如水火. 菽粟如水火, 而民焉有不仁者乎?”

6) 『孟子』 「梁惠王上」,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7) 『孟子』 「離婁上」, “爭地以戰, 殺人盈野. 爭城以戰, 殺人盈城. 此所謂率土地而食人肉, 罪不容於死.”

8) 『孟子』 「梁惠王上」, “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嗜殺人者也, 如有不嗜殺人者, 則天下之民皆引領而望之矣.”

말했고, 또 “진실로 인에 뜻을 두면 惡함이 없다.”<sup>10)</sup>라고 했다. 이처럼 비록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에는 인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인과 성을 연관시켜 제시한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자는 인간 본성의 보편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 멀어진다.”<sup>11)</sup>라고 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본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구절은 보이지 않는다. 이점에 대하여 자사는 “선생님께서 성과 天道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들을 수 없었다.”<sup>12)</sup>라고 했다. 그러나 맹자는 공자가 말한 인을 성으로 받아 들였다. 비록 공자는 인을 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논어』에서 말하는 인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런데 맹자는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질, 즉 도덕적 본성을 모두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맹자가 천을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善한 마음, 즉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천은 도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인간이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심성을 태어나면서부터 갖춘 본질로 규정했다. 그래서 그가 성선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先哲들이 수립한 우주론 내지 인간론에서 드러난 천과 인간의 일관된 사고가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sup>14)</sup>

天爵이라는 것이 있고, 人爵이라는 것이 있다. 어질고 의롭고 충직하며 신실하고 착함을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천작이다. 公, 卿, 大夫, 이것은 인작이다. 옛사람들은 천작을 닦으면 인작은 이에 뒤따랐다. 지금 사람

9) 『論語』 「里仁」, “子曰, 唯仁者能好人, 能惡人.”

10) 『論語』 「里仁」, “子曰, 苟志於仁矣, 無惡也.”

11) 『論語』 「陽貨」,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12) 『論語』 「公冶長」,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13) 牟宗三, 『鵝湖』 권347, 臺北:臺灣鵝湖月刊雜誌社, 2004, p.8.

14) 장민기, 「맹자의 심성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13.

들은 천작을 닮음으로서 인작을 추구한다. 인작을 얻고는 천작을 포기하면, 이는 대단히 미혹한 사람이라, 결국은 역시 멸망할 뿐이다.<sup>15)</sup>

도덕적 본성의 근원은 천이다. 맹자는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 자는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또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sup>16)</sup>라고 했다. 인간은 이렇게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그 원천인 천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진심 즉 본성을 실천한 결과이다. 이로부터 인간의 마음이 곧 천이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하게 되는데 맹자는 사람이 본래 타고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는 본능이라 할지라도 타고난 분수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은 命에 해당하는 것이지 본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사람의 감각기관이나 四肢가 지닌 욕망을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외재적인 명에 달린 것이므로 그것을 성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입이 좋은 맛을 추구하고 눈이 좋은 색을 추구하고 귀가 좋은 소리를 추구하고 코가 좋은 냄새를 추구하고 사지가 안일함을 추구는 것은 본성에 속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명에 달려 있으므로 군자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仁이 있고, 군주와 신하 사이에 義가 있고, 손님과 주인 사이에 禮가 있고, 지혜가 현자에게 갖추어지고 성인이 천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모두 命에 속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본성에 달려 있으므로 군자는 그것을 命이라고 부르지 않는다.<sup>17)</sup>

15) 『孟子』「告子上」, “孟子曰, 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古之人修其天爵, 而人爵從之. 今之人修其天爵, 以要人爵 既得人爵, 而棄其天爵. 則或之甚者也 終亦必亡而已矣.”

16) 『孟子』「盡心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

17) 『孟子』「盡心下」, “孟子曰,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

어느 것이든 명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중 올바른 것에 순응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위태로운 담장아래에 서 있지 않는다. 도를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다가 죽는 것이 명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은 명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sup>18)</sup>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천도, 천명은 오묘하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알 수 있다고 하였을 때 앎[知]은 예측해서 아는 앎이 아니라 실천적 앎을 말한다.<sup>19)</sup> 따라서 천과 성의 개념은 맹자의 성선설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의 四端之心の 근원이 되었다. 이 사단지심은 무엇인가?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惻隱之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羞惡之心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恭敬之心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是非之心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오지심은 의이며, 공경지심은 예이고, 시비지심은 지이다. 인의 예지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구하면 얻게

---

也, 四肢於安佚也, 性也, 有命焉, 君子不謂性也.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  
 채인후는 “맹자는 여기서 ‘性’과 ‘命’을 대비하여 진정한 본성 바른 본성은 자연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의예지와 천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연본성은 육체에 제약받고, 운명적인 제약에 의해 자주적이지 못하다. 오직 감성의 요구를 초월하고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은 내재적 도덕성만이 사람의 性情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정한 본성이요 바른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蔡仁厚, 천병돈 譯, 『맹자의 철학』, 예문서원, 2000, p.83; 박승현, 『맹자의 성선론과 도덕적 악의 문제』, 『철학탐구』 제26집, 2009, p.40)

18) 『孟子』 「盡心上」, “孟子曰 莫非命也, 順受其正, 是故知命者, 不立巖墻之下. 盡其道而死, 正命也. 桎梏死者, 非正命也.”

19) 蔡仁厚, 천병돈 譯, 앞의 책, p.91.

되고, 놓아 버리면 잃게 된다.’고 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서로 두 배 또는 다섯 배가 되어 계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을 남김없이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20)</sup>

맹자의 위의 언급은 생물학적 본능이나 경향성보다는 선천적으로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공통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맹자의 성명론은 생리적 욕구-본성으로 이해되던 것을 윤리-규범적인 자연스러운 경향성으로 재해석하면서 통일시키는 논리이다.<sup>21)</sup>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고유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덕적 본질로서의 인의예지라고 했다. 그래서 맹자는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닦아서 명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다.”<sup>22)</sup>라고 했다. 맹자는 모든 인간에게 성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개 그 종류가 같은 것은 모두 서로 닮게 마련이다. 어떻게 유독 사람의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sup>23)</sup>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천명으로 부여받은 도덕성이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본연지성이라는 주장이며 본성이 천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 본성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동물과

20) 『孟子』 「告子上」, “孟子曰, 乃若其情, 則可以偽善矣, 乃所謂善也.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 仁義禮智, 非由外鑠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告曰, ‘求則得之, 舍則失之, 或相倍蓰而無算者, 不能盡其才者也.’”

21) 이찬, 「감성, 본성, 그리고 도덕적 태도」, 『철학』 제104집, 2010, p.35.

22) 『孟子』 「盡心上」,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夭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

23) 『孟子』 「告子上」, “故凡同類者 舉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차이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맹자가 말하기를, “천하에서 性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자취를 따질 뿐이니, 이미 드러난 자취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형세를 근본으로 삼는다. 지혜로운 자를 미워하는 까닭은 穿鑿하기 때문이니, 만일 지혜로운 자가 禹王께서 물을 소통시키신 것처럼 하면, 지혜로움을 미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왕께서 물을 소통시키신 것은 자연의 형세를 따라 아무 탈이 없는 바를 행하신 것이니, 만일 지혜로운 자가 또한 자연의 형세를 따라 아무 탈이 없는 바를 행한다면 그 지혜가 또한 클 것이다. 비록 하늘이 높이 있고 별이 멀리 있으나, 진실로 이미 드러난 자취를 따진다면, 천 년 뒤의 冬至를 가만히 앉아서 알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위적 규범성으로 사회화 시킴으로써 가공된 본성을 자신의 원래 본성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맹자는 개탄<sup>25)</sup>하고 있다. 맹자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지극히 微微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내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 舜임금은 사물의 이치에 밝았고 인륜을 잘 살피서 인과 의에 따라 실천했을 뿐, 인과 의를 억지로 실천한 것이 아니다.”<sup>26)</sup>라고 했다. 맹자도 인간은 물론 금수와 같은 본능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고자가 인성을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욕구 혹은 생명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고자는 “타고난 것을 곧 성이라고 한다.” 이에 맹자는 “타고난 것을 성이라 함은 흰 것을 희다고 함과 같은가?”라고 하자 고자는 “그렇다.” 맹자는 “흰 깃털의 흰이 흰 눈의 흰과 같으며, 흰 눈의 흰이 白玉의 흰과 같은가?”라고 하자 고자는 “그렇다.”라고 답한

24) 『孟子』「離婁下」, “孟子曰 天下之言性也, 則故而已矣. 故者以利爲本. 所惡於智者, 爲其鑿也, 如智者 若禹之行水也, 則無惡於智矣. 禹之行水也, 行其所無事也. 如智者亦行其所無事, 則智亦大矣. 天之高也, 星辰之遠也, 苟求其故, 千歲之日至, 可坐而致也.”

25) 이찬, 앞의 논문, p.37.

26) 『孟子』「離婁下」, “人之所以異於禽獸者 庶民去之 君子存之.”

다. 이에 맹자는 “그렇다면 개의 본성이 소의 본성과 같으며, 소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같은가?”라고 묻자 고자는 “食慾과 色慾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은 안에 있으며 밖에 있지 않다. 의는 밖에 있으며 안에 있지 않다.”<sup>27)</sup>에서 볼 수 있듯이 이처럼 인간과 동물을 생물학적인 본능과 심리적인 욕망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 가운데서 도덕성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이미 만들어진 어떠한 도덕성을 습득하여 갖추게 된 규범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다.<sup>28)</sup> 인의는 바로 인간이 금수와 다른 까닭으로서의 차이를 가리키며, 도덕적 본성이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만이 소유한 본성은 인간이 인간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같은 자연스런 생리적 본능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게 해주는 인간만의 도덕성이고, 그것이 바로 성선, 인의예지, 사단지심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맹자가 말했다. “물 자체에는 정말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기는 하지만, 위와 아래의 구분도 없는가?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 물을 쳐서 튀어 오르게 하면 사람의 이마 높이를 넘어가게 할 수 있고, 물결을 막아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면 산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겠는가?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사람이 不善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 역시 이처럼 본성이 밖의 힘에

27) 『孟子』「告子上」, 告子曰, “生之謂性.” 孟子曰, “生之謂性也, 猶白之謂白與?” 曰, “然.” “白羽之白也, 猶白雪之白, 白雪之白猶白玉之白與?” 曰, “然.” “然則犬之性猶牛之性, 牛之性猶人之性與?” 告子曰, “食色, 性也. 仁, 內也, 非外也, 義, 外也, 非內也.”

28) 맹자는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는 자연스러운 욕구 등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통일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盡心下」 24장에서 답하고자 하였다.(이찬, 앞의 논문, p.39.)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sup>29)</sup>

맹자는 외부의 강제적인 힘을 쓰지 않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선하다고 보았다. 그것은 물이 인위적인 조작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이든 사람이든 각각의 존재에 내재된 성질대로 외부의 어떠한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즉 물이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 자체에도 선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현실적인 삶에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도 않고 또 실천되지도 않는다. 맹자에 따르면 그 까닭은 우리가 본래부터 소유한 그 본성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잃어버린 그 본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심성은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는 수양론이 요구된다. 그는 “구하면 얻게 되고 내버려두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구하는 것이 얻는데 유익한데, 그것은 구하려는 대상이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구하는 데 정해진 방법이 있고 얻는 것이 명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구한다 해도 얻는 데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데, 그것은 구하려는 대상이 내 자신의 밖에 있기 때문이다.”<sup>30)</sup>라고 했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가야할 길이다.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도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sup>31)</sup>

29) 『孟子』 「告子上」,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頽,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 其勢則然也 人之可使爲不善, 其性亦猶是也.”

30) 『孟子』 「盡心上」, “求即得之 舍即失之 是求有益於也 求在我者也 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

맹자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올 줄 모르는 것을 이렇게 탄식하였다.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을 것을 역설하였다. 그것이 ‘잃어버린 도덕성의 회복’, 즉 구방심이다. 맹자는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存心이라고 했고, 잃어버린 것을 放心이라고 하면서 서로 구분했고, 사람을 이 존심과 방심의 결과에 의해 구분하여 大人과 小人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몸에는 귀한 부분과 천한 부분이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중요한 부분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해쳐서는 안 되고, 천한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키우는 자는 소인이고, 중요한 부분을 키우는 자는 대인이다.”<sup>32)</sup>라고 한 것이다. 소인은 감각기관에 끌려 다니고 대인은 사유기관에 의하여 행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단속하여 물욕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잘 보존하여 대인이 되어야 하며, 감각기관에 끌려 다니며 미천하고 작은 것을 추구하는 소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맹자는 인간이 방심하지 않는 존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서 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도덕성이 외부의 물욕에 탐닉되지 않도록 養性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양성과 본성의 회복은 같은 것인가? 맹자는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개가 집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크게 걱정하고 찾아다니면서 인간이 인간된 본질인 본심이 사라져가는 것은 되찾을 줄 모른다.”<sup>33)</sup>고 하였다. 인간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크게 걱정하고 찾기에 힘쓰지만,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본심을 잃어 버렸을 때는 그것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맹자는 이처럼 자신의 본심

31) 『孟子』「告子上」, “仁人心也, 義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放, 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32) 『孟子』「告子上」, “體有貴賤, 有大小. 無以小害大, 無以賤害貴. 養其小者爲小人, 養其大者爲大人.”

33) 『孟子』「告子上」, “人有鷄犬放, 卽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을 잃어버리고도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sup>34)</sup>이라고 했다.

즉 맹자는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sup>35)</sup>고 하며,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도덕성을 남김없이 실현하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본성의 회복, 도덕성의 회복은 우리가 감각적 욕구를 줄임으로써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外物에 가려지고 이끌려져 육체적 충동에 빠진 본심을 찾아오는 것이다.

### III. 大丈夫論과 現代的 意義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지난 20세기가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시대였다면 오늘의 21세기는 정신과 문화의 시대로서 문화강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동안 인류를 지배해 왔던 물질만능과 달리 정신적 가치에 대한 성찰과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 도덕 수양을 통하여 개인의 정신평화를 이루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의식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공동체에서부터 화목과 사랑을 실천하고, 차츰 열린사회로 확대하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가치체계 혼란의 상황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른바 인간의 삶에서 개인 가치란 ‘없으며’ 오로지 개인의 주인 선택만 있을 뿐이라는 철학 견해를 통해 정당화<sup>36)</sup>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난과 無知 그리고 정

34) 『孟子』 「離婁上」, “自暴者, 不可與有言也, 子棄者, 不可與有爲也. 言非禮義, 謂之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35) 『孟子』 「盡心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36) 레슬리 스티븐슨 外, 박중서 譯,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갈고

신장애는 물론이고 신체장애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류가 함께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도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양하게 제기되고 문제시되고 있는 가치관의 혼돈과 가치규범의 불확실성에 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과 함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불신과 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변하는 자아의 불확실성에 따른 가치 전도에 있을 것이다. 특히 물질만능주의 풍조 속에서 정신 가치의 근본인 본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또한 그 원인은 삶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의식의 부재, 지역 및 세대 간의 갈등, 사회적 불평등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병리와 병폐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려 하며 즉각적인 욕구와 욕망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회의 풍조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인간상’의 확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사물과 접촉해왔다. 그로 인해 각종 욕망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고, 욕망 때문에 본래의 양심이 손상되고 파괴되어 동물처럼 되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들이 자주 경험하는 도덕적인 갈등의 상황은 바로 욕망과 정당한 도리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욕망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욕심은 기질적 본능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본성이 가리어졌을 때에 생기는 현상이다. 유가 철학에서 욕망을 규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몸과 마음에 대한 문제, 공과私の 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욕망은 도덕과의 관계성 속에서 논의 되었으며, 도덕적 문제의 설정은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 범주에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지배하는 범주에서 설정된 것이다.<sup>37)</sup> 맹자는 욕망

이란 지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수양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욕망을 도덕의 상대 개념으로 간주하고 절제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맹자가 말하는 도덕적 수양이란 바로 욕심을 적게 하고 선한 마음을 잘 보존하여 크게 실현시키는 것이다.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욕망을 적게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사람이 욕망이 적으면서도 본래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드물고,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서도 본래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드물다.<sup>38)</sup>

맹자는 지나친 감각적 욕망이나 물질적 욕망을 경계하고 여기에 과욕, 즉 욕망을 줄이라는 표현을 쓴다. 과욕이란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라는 의미다. 그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 욕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때 마음이 도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욕심이 늘어나서 도덕성을 가리게 된다. 맹자의 도덕성 기르기는 사단지심 즉 본심의 도덕성이 언제나 잘 발현되도록 보존하고 함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욕은 어디까지나 도덕심의 발현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도덕심이 충분히 발현되고 활동하기만 한다면 욕망의 통제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맹자는 도덕심을 보존하고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과욕을 제기<sup>39)</sup>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기관은 사유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사물과 접촉하면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때 사유기관인 마음은 도리에 맞게 감각기관을 조절하여 욕망이 조절되도록 해야 한다.

37) 김교빈 외, 『동양철학은 물질문명의 대안인가』, 웅진출판, 1999, pp.134-136. p.143.

38) 『孟子』 「盡心下」, “養心莫善於寡欲. 其爲人也寡欲. 雖有不存焉者, 寡矣. 其爲人也多欲. 雖有存焉者, 寡矣.”

39) 유성선, 「맹자, 순자의 심론 연구」, 『강원인문논총』 12집, 2004, p.459.

공도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소인인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몸의 중요한 부분을 따르면 대인이고, 하찮은 부분을 따르면 소인이다.” 공도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부분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부분을 따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귀와 눈의 기능은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사물에 의해 가리어진다. 외부의 사물이 한 사물에 불과한 감각기관과 접촉하면 감각기관은 그것에 의해 이끌려가게 된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중요한 부분을 확고하게 세우면 하찮은 부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대인이 되는 까닭이다.<sup>40)</sup>

위의 인용문은 맹자가 공도자에게 도덕성을 실현한 대인을 소개한 것이다. 맹자는 인간을 몸과 마음이라는 두 기관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마음이 관장하는 일은 사유작용이고 귀와 눈처럼 감각기관이 관장하는 일은 감각작용이라고 하였다. 대체인 마음이나 소체인 감각기관은 물론 다 같이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금수도 감각기관인 소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람만이 가진 특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특성은 인간과 금수의 근본적 차이인 대체의 작용, 즉 思惟 작용에 있다. 그래서 맹자는 소체를 따르는 사람을 소인이라 하고 대체를 따르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대인은 먼저 그 도덕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물욕에 끌려가지 아니하며 이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본성인 도덕성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맹자의 심성수양론은 ‘도덕성의 확립’, ‘잃어버린 도덕성의 회복’, ‘과욕을 통한 물욕 줄이기’ 등이 내면적 수양법에 속한다면, 대장부론은 ‘호연지기의 함양’을 통한 적극적이고 실천적 수양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맹

40) 『孟子』 「告子上」, “公都子 問曰鈞是人也 惑爲大人, 惑爲小人, 何也. 孟子曰 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曰鈞是人也 惑從其大體, 惑從其小體, 何也. 曰耳目之官 不思而蔽於物, 物交物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不得也. 此天之所與俄者, 先立乎其大者, 則小者不能奪也. 此 爲大人而已矣.”

자가 말한 이 호연지기란 무엇인가?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며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공손추가 물었다. “호연지기란 무엇인지요?” 맹자가 대답했다. “말하기 어렵다. 그 기의 됃됨이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데 울곧음으로써 기르고 해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된다.”<sup>41)</sup>

맹자는 호연지기에 대한 공손추의 물음에 ‘말하기 어렵고, 또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다’고 대답했다. 이 호연지기는 우리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에 홀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일정한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쉽게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용문의 氣는 일반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숨을 내뿜고 들이마실 때의 공기, 사람의 몸 안에 유통 순환하는 에너지로서 형체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생리 기능으로서의 혈기, 모든 존재를 생성케 하는 구체적인 質料로서의 형기, 우주 사이에 충만해 있는 일종의 물질적 매개이며 빛과 소리가 전파되는 전기, 우주 만물의 근거가 되는 궁극적 존재로서의 太虛의 원기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sup>42)</sup> 이러한 기를 맹자는 “몸에 충만하여 몸을 부리는 것이다.”<sup>43)</sup>라고 했다. 몸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리고 몸이 올바르게 부림을 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다. 그래서일까? 호연지기에 대하여 주자는 ‘浩然은 성대하게 흘러가는 모양으로 이 기는 내 몸에 가득 찬 것이며, 이 기는 천지간에 생명을 받은 모든 인간에게 똑 같이 주어진 천지의 正氣’<sup>44)</sup>라고 했다. 맹자가

41) 『孟子』 「公孫丑上」, “敢問未子, 惡乎長. 曰. 我知言, 我善養浩然之氣.. 敢問何謂浩然之氣. 曰. 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42) 오석원, 「孟자의 浩然之氣 研究」, 『儒教思想研究』 제34집, 2008, p.60.

43) 『孟子』 「公孫丑上」, “氣. 體之充也.”

마음에 쌓은 이 기운 즉 도덕성은 그 스스로 기르고 체득한 경지이다. 그러므로 호연지기는 마음의 수양과 실천을 덕목으로 하는 맹자 수양론의 핵심이 되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맹자는 송나라 사람의 농사짓는 행위에 비유하여 호연지기에 도달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억지로 바로 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잊지 말 것이며, 억지로 助長해서도 안 된다. 송나라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송나라 사람 중에 곡식의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싹을 뽑아 올려준 자가 있었다. 그가 피로한 기색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참 힘들었다. 내가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의 아들이 달려가서 보니 싹은 이미 시들어 버렸다.<sup>45)</sup>

곡식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적절하게 보살피야 그 본성에 따라 자라난다. 그러나 억지로 자라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곡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호연지기는 자연스럽게 의로운 행위가 쌓여서 되는 것이다. 한 두 번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의를 쌓아가는 것은 결과에도 집착하지 말고 조급하게 서둘러도 안 되며 억지로 쌓아도 안 된다. 그래서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음에서 잊지도 말아야 하며, 조장해서도 안 된다.”<sup>46)</sup>고 한 것은 아닌가. 나아가 맹자는 “그 기의 됴됨이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데, 올곧음으로써 기르고 해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된다. 그 기의 됴됨이는 의와 도를 짝으로 삼기에 이것들이 없으면 위축

44) 『孟子』「公孫丑章句上」, 朱子 註: “浩然 盛大流行之貌 氣即所謂體之充者. 天地之正氣 而人得以生者 氣體段 本如是也.”

45) 『孟子』「公孫丑上」,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謂其人曰 今日疾矣 予助苗長矣其子 趨而往視矣 苗則稿矣.”

46) 『孟子』「公孫丑章句上」, “必勿忘, 勿助長也.”

되고 만다. 그것은 의가 쌓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우연히 한번 나의 어떤 행위가 의에 부합되었다고 해서 호연지기를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하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데가 있다면 이 호연지기는 위축되고 만다.”<sup>47)</sup>고 했다. 이는 맹자가 호연지기를 기쁨에 있어서 ‘정직함으로 기르고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가 쌓여서 생겨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호연지기는 정직 즉 올곧음으로써 기르고 해치지 않는다면 도달할 수 있고 의로운 행위를 거듭하여 길러나간다는 것이다. 작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덕목이며, 의는 인간이 사실과 가치의 세계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도는 인도와 천도를 합친 것으로 직을 바탕으로 한 의가 구체적 현실에서 실천되어 행동화 된 것을 말한다.<sup>48)</sup> 그래서 사람은 본래 호연지기를 갖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사욕으로 훼손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集義를 통해서만이 본래의 호연지기를 회복할 수 있다.<sup>49)</sup> 이것은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맹자가 이상적, 도덕적 인간상으로 제시한 ‘대장부’는 도덕적 인간의 模本으로서 인간본성의 회복과 집의라는 수신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장부란 호연지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다.

47) 『孟子』「公孫丑上」. “氣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氣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 行有不慊於心, 則餒矣.”

48) 오석원, 앞의 논문, p.65.

49) 朱子は “集義는 積善이란 말과 같으니, 일마다 善을 쌓아 모두 義에 합하고 자 한 것이다. (『孟子』「公孫丑章句上」, 朱子 註: “集義 猶言積善 蓋欲事事皆合於義也.”)”고 했다. 그리고 주자의 浩然之氣 本有說에 대하여 풍우란은 맹자는 호연지기에 대하여 ‘의를 축적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지 ‘의를 축적하여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여 주자가 程子の 말에 얽매어 호연지기를 본유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맹자』 浩然章의 大義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맹자의 호연지기는 존재의 본질인 天地之氣와 존재의 궁극적 원리인 天理가 함께 포함된 용어이므로 단순히 본유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석원, 앞의 논문, p.66.)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큰 길을 걸어간다. 관직에 등용되었을 때에는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을 때에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 부귀해져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빈천한 상황에 처해도 의지가 변함이 없고 위세와 무력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sup>50)</sup>

맹자는 “대인은 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남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행동함에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sup>51)</sup>, “예인 듯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가 아닌 예와 의인 듯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sup>52)</sup>라고 했다. 맹자는 대장부가 비록 관직을 얻지 못하여도 도를 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인을 품었기 때문이고 의를 실천한 결과라고 보았다.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대장부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성교육보다는 지식중심의 교육에 몰입하고 있고, 학벌 위주의 사고가 일으킨 경쟁의식과 배타주의는 극심한 인간성 황폐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富로 인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가치관의 혼돈과 도덕심의 결여 등은 인명 경시풍조, 퇴폐, 향락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은 상실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의 주장대로 모든 인간이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문제의 원인은 많은 경우가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도덕성이 훼손당했기 때문이다. 맹자도 이렇게 인간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외부 환경의 영

50) 『孟子』 「滕文公下」,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與民由之, 不得志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比之謂大丈夫.”

51) 『孟子』 「離婁下」, “大人者 言不必信, 行不必果 惟義所在.”

52) 『孟子』 「離婁下」, “非禮之禮, 非義之義, 大人不爲.”

향 탓이라고 했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극도로 혼란한 전국시대 후반기였다. 이때는 인간의 가치기준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는 패권다툼이 만연되었던 혼탁한 시기였다. 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일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시기였으며,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一身의 보존에만 급급한 시기였다. 이 때문에 사회의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인의예지라는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맹자 성선의 근거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선한 본성에 근거하여 도덕적 삶을 사는 것만이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맹자는 인간은 天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온전히 발현하는 도덕적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열은 “공자의 성은 교육적으로 볼 때 가르침과 거듭 익히는 것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성, 말하자면 변화 가능성을 지닌 것이지만 이미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는 고정불변의 이치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성을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는 성으로 본 것은 맹자도 마찬가지이다.”<sup>53)</sup>라고 했다. 현대인들이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대부분 감각기관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각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맑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기관보다는 도덕성에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호연지기를 지닌 인간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도덕적 실천행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53) 김충열, 『김충열교수의 중용대학강의』, 예문서원, 2006, p.119.

## IV. 결론

근대 이래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했고, 貧益貧 富益富의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도덕성의 파괴로 인한 인간성 상실은 전 인류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다. 비록 오늘날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에 힘입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가치관의 혼돈과 도덕성의 결여, 왜곡 등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는 인간의 건전한 가치관과 인간애, 도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의 물질적 풍요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망쳐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의예지의 본성을 한마디로 도덕성이라고 부른다. 이 고유한 인의예지의 도덕성이 현실에서 실천될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획득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말할 수 있다. 맹자는 인간의 본질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인간의 도덕적 주체를 확립하였다. 그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 즉 자기반성적 능력을 갖추므로서 인간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 스스로의 심성수양을 통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맹자의 수양론을 자율적 도덕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본 연구는 맹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대화된 사회에 있어서 결여되기 쉬운 도덕성 회복, 인간적 삶을 위한 맹자의 대장부론을 고찰했다. 물론 맹자의 성선과 그 체계, 인의예지를 통할한 사단의 근거와 고자와의 논쟁 등은 가급적 약술하거나 제했다. 이는 심성수양론의 입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연구 성과보다는 실천적 의미의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맹자의 본성, 인의예지, 사단 등 수양 과정과 과욕, 호연지기의 대장부로 이어지는 도덕성 회복을 전개했다. 예를 들면, 존심과 방심을 통한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

욕구를 줄임으로써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외물에 가려지고 이끌려져 육체적 충동에 빠진 본심을 찾아오는 것이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적 특성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욕망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한다. 맹자가 주장한 소체의 욕망은 감각기관에 따르는 욕망이라고 한다면 대체의 욕망은 도덕성을 추구하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선한 본성을 잃고 욕망에 사로잡혀 불선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나친 감각적 욕망과 물질적 욕망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수양, 즉 양심이 필요하고 맹자는 그것을 과욕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결국 이는 도덕적 가치, 선을 추구하는 호연지기로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자는 학문과 심성수양을 통해 완성된 인물을 聖人, 君子라고 했고, 맹자는 그러한 인물을 대장부라고 불렀다. 대장부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속이지 않으며, 자기에 충실한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면 마음이 불안해 진다. 그러나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므로 심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안정되면 행동이 바르고 스스로 광명정대한 기상을 보인다. 대장부는 수신과 처세의 결과로 나타나는 맹자의 이상적 인간형이다. 그는 개인의 인격은 물론 사회적 인격도 완성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때로 법보다는 도덕의 필요성을 切感한다. 이러한 도덕실천이 학자들의 사상적 이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인간들 서로가 조화를 이뤄가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절실하고 구체적인 요소임을 자각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論語』

『孟子』十三經注疏 影印本, 北京:中華書局, 1980.

牟宗三, 『鵝湖』 347卷, 臺北:臺灣鵝湖月刊雜誌社, 2004.

김교빈 外, 『동양철학은 물질문명의 대안인가』, 웅진출판, 1999.

김충열, 『김충열교수의 중국철학』, 예문서원, 2006.

\_\_\_\_\_, 『김충열교수의 중용대학강의』, 예문서원, 2006.

박승현, 「맹자의 성선론과 도덕적 악의 문제」, 『철학탐구』 26,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2009.

신기철 外,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93.

오석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유교의 역할』, 관세사, 1997.

\_\_\_\_\_, 『韓國 道學派의 義理思想』, 儒敎文化研究所, 2005.

\_\_\_\_\_, 「孟자의 浩然之氣 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34, 한국유교학회, 2008.

유성선, 「맹자. 순자의 심론 연구」, 『강원인문논총』 1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  
구소, 2004.

이장희, 「맹자와 순자의 성론 비교연구」, 『중국학보』 58, 한국중국학회, 2008.

이 찬, 「감성, 본성, 그리고 도덕적 태도」, 『철학』 104, 한국철학회, 2010.

장민기, 「맹자의 심성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4.

方東美, 鄭仁在 譯, 『中國人의 人生哲學』, 서울: 탐구당, 1992.

蔡仁厚, 천병돈 譯, 『맹자의 철학』, 예문서원, 2000.

레슬리 스티븐슨 外, 박중서 譯,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갈고스,  
2006.

## Abstract

*Modern meaning of 'Theory of a great Man' for Morality Recovery*

*/ Jeong Mi-sun\**

What is reason that moral life, sense of values is necessary with human? Human by instinctive desires such as an appetite, sexual desire, desire for power cultivate if do not finish contempt and oneself human done duty with brute different .

Right comprehension about human and self-consciousness of Good Human Nature a bout nature, expansion, practice may be method to cope problems by image of man de partment which is becoming an issue as is modern society, sense of values fall, material ism etc. Method of Serious Mind that preserve moral mind of Mèngzǐ passes with met hod of to seek for the lost mind actually. Go forward to foster and expands it not tha t stay that this preserves moral nature of human simply. Few wants for this, great spir it, a great man are very important.

Learning of Confucian taking a serious view practice. Therefore, genuine moral culti vate should be that recover losing morality, and expand socially. We all of the constitu ents will have to make society which can seek happiness through moral practice action as well as can run moral life. Because can bring social stability and peace displaying h uman's moral capacity maximum. Morality recovery of Mèngzǐ and the practice need more in terms of is like this.

**【Key words】** Mèngzǐ, Humanity-Righteousness-Propriety-Wisdom, Serious Mind, To seek for the Lost Mind, Great Spirit, A great Man, Morality Recover y, Philosophy Practice

투고일 : 11월 7일, 심사완료일 : 12월 4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

\* Ph.D.Candidate, Kangwon Univ. / mahaceo@naver.com